



2018 대림 성탄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가을은 인간적인 주제들을 묵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낙엽은 언제나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대림 제 1 주일로 새로운 전례주년이 시작됩니다. 다해의 복음은 루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례력으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는 질문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실현된 이러한 기대에, 복음의 메시지는 새로운 내용을 더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재앙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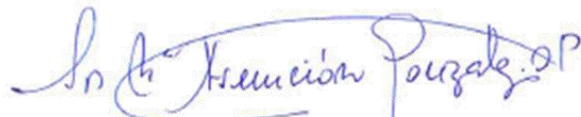
성 바오로는 코린토 2 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생겨난 기도를 되풀이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우리도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의 종말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깊이 변화되기를, 사랑의 문명이 시작되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폭력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정의롭고 쇠신된 세상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시대의

상황 안에서 절실하게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세상에 오십시오. 불의와 폭력이 있는 곳에 오십시오. 난민촌에, 세상의 곳곳에 오십시오. 마약이 지배하는 곳에 오십시오. 당신을 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들에게도 오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도 오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오시어 오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오십시오. 오시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되고 당신의 현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 바오로와 함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전례 시기에 우리는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우리의 세상에 그 아드님의 현존을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대림과 성탄을 기원합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